

## |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 등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교환

### 하바로프스크지방의 환경상황 및 개선대책

하바로프스크지방의 꾸준한 사회경제발전은 자연환경의 다양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하바로프스크 지방정부는 2007년 6월 27일에 정부령 No. 124 「하바로프스크지방의 환경상황 및 개선대책」을 공포했다. 이 정령에는 대기중에 방출되는 오염물질량이나 주자원에서 배출되는 하수폐수량, 고형폐기물 처리장의 도입 등의 목표를 정해놓고 현재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가환경감사의 조직인 환경보전국에서 804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총액 약 880만 루블의 벌금을 부여했다.

하바로프스크지방에서는 총면적 62,600 m<sup>2</sup>의 자연보호구역이 있고, 그 중에는 국립 자연보호구가 6구역, 국립금어구가 25구역, 국립공원이 1곳, 자연공원이 2개, 토지개량구가 1구역, 생태적 회랑(생식지를 연결해 생물의 이동로로서 도움이 위한 공간) 5개, 천연기념물이 60건 있다.

하바로프스크지방의 310종의 식물, 159종의 동물이 실려있는 레드리스트(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고서)를 새롭게 출판했다.

속성재배가 가능한 비닐하우스 수를 11동에서 24동으로 약 2배 늘려서 그 결과 연간 350만그루 이상의 침엽수의 묘목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바로프스크지방에서는 폐기물·리사이클 대책에도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리사이클 제품(합계 90종류이상)을 제조하는 기업의 수는 30사에 이른다.

아무르강의 환경현상 개선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국제협력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하바로프스크지방 정부의 주도하에서 2008년 1월 29일에 중국의 북경시에서 「국경을 초월한 강의 유효한 이용 및 보전에 대해서」라는 러·중 정부간 협정서가 체결되었다.

하바로프스크 지방정부와 흑룡강성, 효고현, 도야마현과의 국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 ① 텔레비전 방송, 신문 등의 매스 미디어
- ② 에코쿵쿨, 에코퀴즈 등의 각종행사
- ③ 환경분야에서의 전문적 기능향상을 위한 단과대학
- ④ 비영리단체를 위한 지사(知事) 조성금 등을 활용해서 시민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